'아트전북페스타' 전시·이벤트 다채

29일~12월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개최

'2024 아트전북페스타(AJF)'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와 JTV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아트전북페스타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도립미술관 후원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층 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타에서는 주목한 올해의 작가 부스터 부스전, 지역 청년작가 유망주의 스프링 부스전이 펼쳐진다. 또한 사랑나눔 기부전, 뚝딱뚝딱 조각 소품전, 슥삭슥삭 드로잉전 등 다양한 전시가 함께 이뤄진다.

더불어, 생애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작가의 '스타트전' 부스도 새롭게 단장됐다.

'2024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로는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협업으로 대형 소장품이 1층 메인 전시장에 전시되며, 11월 30일 오후 2시에는 1·2부로 나눠 '이건희컬렉션 속 전북작가' 및 '담론과 기획의 방향'를 주제로 이애선 도립미술관장이, 12월 1일 오후 2시에는 '작가의 전략적인 홍보 방안 연구'를 주제로 팔복예술공장 나유미 창작기획팀장이 각각 미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 2층 '복작복작 아트난장과 조물조물 공예전'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예 소품, 아트상품 등 작품들을 판매하는 부스와, 우드 열쇠고리, 수제 도장 만들기, 핸드 캐스팅, 민화 그리기 체험 등 체험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백승관 지회장은 "이번 아트전북페스타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전북도민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술 시장이 활성화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 아트전북페스타 포스터

/장은성 기자

'대학가요제 리턴즈' 부안서 열린다

12월 13일 부안예술회관서 추억의 명곡 소환

부안군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대학가요제 리턴즈'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부안예술회관 기획공연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대학가요제,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젊은이의 가요제 등에서 배출된 추억의 명곡들을 소환하는 캠퍼의 영웅들의 귀환콘서트로 홍서범, 건아들, 샌드페블즈, 서울패밀리 등 청춘문화와 대중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던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본 공연은 옥슨80 홍서범, 건아들 곽종목, 샌드페블즈 여병섭, 서울패밀리 목비, 위드다온 임채영이 참여해 라이브로 진행되고 '나 어떡해', '불놀이야', '젊은 미소', '난 괜찮아', '그대' 등을 들려준다. 특별출연으로 디스이즈잇이 LED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추억의 가요제 스타들을 다시 만나 중년세대들에게는 옛 추억을 불러 일으키고 현 세대에게는 중년들의 추억을 공유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며 부안군민은 90% 할인해 1,000원이다. 예매는 12월 2일부터 티켓링크와 부안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장 담그기 문화 가치 확산 '앞장'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음식 맛은 장맛!'을 주제로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장(醬)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 시민들이 직접 전통 장을 담그며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일, 찹쌀고추장&멸치고추장조림 △5일, 간편된장&만능쌈장 △6일, 맛간장&맛간장 샐러드드레싱 △7일, 참치견과류 쌈장&케일·양배추 쌈밥 등 1일 2회, 모두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8일부터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jeonjufoodstory.or.kr)에서 진행되며, 장 담그기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김도영 원장은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의 심사 결과가 나온다"며 "시민들과 함께 장 문화를 나누고 등재를 기원하는 이번 체험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연합 워크숍 순창서 열려

8개 재단 임직원 참석 협력 방안 모색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연합 워크숍이 순창에서 열렸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전북권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군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고보연),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철우),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안종선),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등 8개 재단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ESG교육 △ESG경영 공동선언 △소통·협력강화 프로그램 △플로깅 등이 있으며,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ESG교육은 재단의 핵심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 지역의 우수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연합 워크숍이 순창에서 열렸다.

한 워크숍 참석자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전북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워크숍은 전북권 재단 임직원들이 모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한 ESG경영 선언문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는 "8개 재단의 협력을 통해 전북의 독창적인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4410, 4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30일 '흑석골 닥무지 재현 행사'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30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흑석골 닥무지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과거 한지골이라 불린 흑석골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큰 잔치로 한지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전통의 깊이를 느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풍물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K-한지마을 조성 및 한지 유네스코 등재 기원을 위한 세리머니 △닥무지 체험 △잔치 분위기 형성을 위한 초대가수 공연 △먹거리 나눔 등으로 진행된다.

닥무지는 솥에 넣고 10시간 정도 증기에 쪄낸 닥나무를 말려낸 뒤 껍질을 잡아 벗겨 껍질과 속대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한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옻칠·갈이 교육 작품 전시회

남원시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강당에서 '2024 남원시 옻칠·갈이 교육'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2014년 첫 시작해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남원 목공예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며, 옻칠과 갈이 과정으로 구분해 옻칠 초급·중급·고급반, 갈이 초급·중급·고급반 등 6개 반을 구성,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옻칠 과정 27명과 갈이 과정 15명 등 총 4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후에는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배움의 결과물을 작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며, 전시회 기간 옻칠목공예 동호회인 옻사랑 회원들이 협찬한 제품들을 특별할인가로 판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